



## 장종태 청장 대전시장 후보 출마 큰 변수

### 대전서구청장 누가되나

대전 서구는 대전 5개 지역구에서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대전의 정치, 금융, 행정기관 등이 밀집해 있어 대전의 정치 1번지로 불린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해 대전토박이보다는 타 시·도 출신들이 많이 분포돼 있다. 그만큼 대전 지역 색이 강하지 않아 지역 민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지난 선거를 살펴보면 보수성향의 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서구는 둔산동, 월평동을 중심으로 한 도심과 가수원, 기성동 지역을 중심으로한 농촌지역이 어우러진 곳으로 표심이 상당히 갈리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 내년 서구청장 선거 후보군으로는 8명의 후보들이 허마평이 오르고 내리고 있다.

서구청장의 내년 선거 관전 포인트는 장종태 현 청장과 박환용 전 청장의 재대결 성사여부다. 특히 장 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박 전청장에게 0.15%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된 만큼 세간의 이들의 리턴매치에 관심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종태 현 청장의 재선이 유력시 되고 있으나, 최근 장 청장이 대전시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방선거의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장 청장이 대전시장 후보로 나선 경우 구청장 선거 후보군들이 서구청장 선거에 대거 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의회 첫 여성 의장을 지낸 김인식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과의 의장 등 정치 경력을 토대로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하다는 점에서 장 청장의 대항마로 항상 거론돼 왔다.

김종천 대전시의원도 오래 전부터 구청장 도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구청장보다는 대전시의원에 재도전해 의장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환용 전 청장의 도전 여부가 관심이다. 현재

로서 박 전 청장의 도전은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쉽게 구청장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조신희 전 대전시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조 전 시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낙마했는데 그 이후 대전교통방송 본부장과 배재대 객원교수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보복을 계속 넓혀왔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김 경기 대전시의원도 허마평이 오르면

상황이다. 국민의 당에서는 김세환 서구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대전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지낸 경험을 갖고 있다.

바른정당에서는 대전시당 창당 주역 중 한명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석대 서구윙협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주민A52·자영업·가장동씨는 '대전 서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도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진다."고 말했다.

주민B34·회사원·월평동씨는 "서구의 표심은 진보정당으로 그동안 흘렸지만, 최근 지역내 상권이 계속 침체되면서 민심도 정당보다는 어떤 인물이 지역발전에 최적이인가에 관심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한발벌 밝힌다

12월 9~11일 총 96.1km 봉송... 대체로운 축하행사와 성공개최디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동계 올림픽으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오는 12월 9일 대전에 온다.

이번 성화봉송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로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총 96.1km에 걸쳐 316명의 주자봉송(68km)과 차량봉송(25.7km), 스카이다(주자+드론촬영) 봉송(2.4km)으로 진행되며, 대체로운 축하행사도 개최된다.

성화는 1일차 9일 오전 10시 54분경 대덕구 범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출발해 조종래 대전육상연맹 회장과 코리안특급 박찬호, 한화이글스 김태균 선수 등 총 113명의 주자가 총 28.6km 구간을 봉송한 후 오후 6시 30분경 서대전시민공원에 안착된다.

2일차 10일에는 오전 11시 18분경 박재현 장애인체육 선수와 송재웅 대전세종 강원도민회장 등 100명의 주자가 서대전시민공원을 출발해 총 26.5km의 구간을 봉송한 후 오후 6시 30분경 보라매공원에 안착된다.

마지막 3일차 11일에는 오전 10시 20분경 김경에 서구체육회 부회장과 임종열 대전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등 103명의 주자가 보라매공원을 출발해 총 41km 구간을 봉송한 후 오후 5시 30분경 1993년 대전엑스포의 상징인 엑스포과학공원(한빛탑광장) 안착을 끝으로

대전 경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특히 성화봉송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16시 30분부터 5시까지 카이스트(KAIST) 내 약 3km 구간에서 스페셜이색 봉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200여명과 우리나라 과학의 상징인 로봇(후보(DRC), FX-2탑승로봇), 그리고, 후보의 아버지인 우준호 카이스트 교수(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 소장) 및 2009년 제8회 과학을 뒤집는 젊은 천재 10인에 선정(피플러 사이언스지)인 바 있는 로봇계의 대난처 '데니스 홍(한국이름 홍원서)' 캘리포니아대학 교수(UCLA Romd)로봇메카닉) 연구소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성화봉송과 함께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중구 서대전시민공원, 서구 보라매공원,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광장에서 지역대표 공연단, 뮤지션,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화려한 지역축하행사도 열린다.

9일 중구 서대전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대전시립무용단'의 어울림한마당을 시작으로 재즈뮤지션의 대표인 '유희정과 코러스', '한발예술가무단'의 멋진 플라보 공연, 파트너사인 코카콜라, 삼성의 LED 퍼포먼스, 비보이 공연이 펼쳐진다.

10일에는 시청 남문 보라매공원에서 대전을 대표하는 현대무용단 '포텐아트컴퍼니' 개막공연에 이

어서 출신 팬텀싱어 최강 바리톤 '박상돈'과 음악에 열정과 끼를 가진 지역의 젊은 뮤지션으로 구성된 '스트링디아츠'가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광장에서 스페셜 행사로 과학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로보트종묘제례악 공연에 이어 '대전시립연극국악원'의 판국과 설장구춤과 국내 최정상 뮤지컬배우 바다와 바리톤 조병주와의 하모니, K-POP 여성그룹 '마마무', '사무엘'의 스페셜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성화주자의 임장과 성화 점화식이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재관 대전광역시청 권한대행은 "이번 성화봉송의 테마는 '경제, 환경, ICT, 문화, 평화'이며, 이중 우리지역 테마는 ICT(4차 산업)'라며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이자 과학도시인 대전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금번 성화 봉송 테마에 어울리는 대한민국의 실리핀벨리로, 세계과학을 주도하는 영원한 희망의 불꽃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3일 동안 대전의 구성구역을 대규모 봉송단(약 400m) 행렬이 이동함에 따라 차량 정체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성화봉송을 위해 일부 차도(선의 순차적인 교통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심원일 충남 논산군 벌곡면장

### 나진요양병원 이사장에 감사패 수여

충남 논산시 벌곡면 심원일 면장은 5일 나진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주언체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벌곡면장이 감사패를 수여한 계기는 나진요양병원에 2013년 2월 6일부터 2017년 9월 18일까지 임원하였던 벌곡면 주민 고 김모씨(향년 67세)를 나진요양병원 임직원 전체가 극진히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다.

고 김모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부양가족들도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병원비를 계속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진요양병원 주언체 이사장은 병원비를 일체 독촉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하여 고 김모씨가 병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소모품과 기저귀, 간식까지 지원토록 하여 세심하게 돌보았다.

결국 지난 9월 18일 김모씨가 별세하자, 주언체 이사장은 밀린 병원비 140여 만원을 대납하고, 이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장례식도 무상으로 치르도록 지원해 주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심원일 벌곡면장이 감사의 뜻으로 패를 증정하게 된 것.

심원일 면장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우리 주민이 나진요양병원 주언체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임직원의 훈훈한 배려로 여생을 이곳에서 편히 보내신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마워했다.

김정환기자

## 충남도 낚시어선 안전운항 긴급 점검

도내 1151척 대상... 안전설비 등 중점 살피기로

충남도는 도내 낚시어선 1151척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시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펼치는 이번 점검은 낚시어선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한다.

우선 도는 오는 7일 낚시어선 주요 항포구인 보령 오천항과 태안 안흥항 등 2곳을 대상으로 시·군,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나머지 연안 항포구에 대해서

는 각 시·군이 6~8일 사이 각각 실정에 맞게 자체 실시토록 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구명·통신·조난 설비와 소방·항해·기관 장비 등 선박 안전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기관별 대응과 역할도 점검해 신속 구조·구급 체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도는 또 이번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이달 12일 당진 장고항2기 복지회관, 19일 한서대 태안캠퍼스, 22일 보령 오천면사무소 등에서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도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내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낚시어선은 1151척으로 전국(4500척)에서 가장 많다. 도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71건으로 인명사고는 없으며, 이 중 75%인 53건은 기관 고장 등 정비 미흡으로 나타났다.

김정환기자

www.lwp.com.kr

## 에너지신산업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에너지신산업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신산업! 한국서부발전이 앞장섭니다.**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에너지가장 한국서부발전이 태양광, 풍력, 수송용, ESS, KCC 등 신재생에너지의 선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안전산업'으로 깨끗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ith Pride  
**LWP 한국서부발전(주)**

# “유기성 하수슬러지 고행연료 사용 충청권 발전소 가장 높아”

## 충청권 3개 발전소, 수도권 유기성 하수슬러지 고행연료 생산량 전량 처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폐자원 에너지화 정부정책에 의해 화력발전소에서 유기성 고행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하수슬러지가 인근 발전소에서 고행연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충청권 3개 발전소까지 먼 거리를 운송해 전량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8월 국내 각 화력발전사 별로 정보공개 요청 받은 자료에 의거 유기성 하수슬러지 고행연료 사용 및 자원재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결과 밝혀졌다.

5일 환실련이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유기성 하수슬러지는 인천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수도권과 강원권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유기성 하수슬러지도 공급물량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도 국내 유기성 하수슬러지 고행연료 화력발전소 사용량은 20만6225톤 인데 이중 15만628톤이 충청권역 3개 발전소에서 국내사용량의 73%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청권 화력발전소가 가장 높았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8만5507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만8438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3만6683톤을 각각 사용했다.

최근 미세먼지인환 대기오염 유해물질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에서 환경부 조사결과 충청권이 초미세먼지 발생량 전국 최대로 드러난 현실을 볼 때 유기성하수슬러지 과다 사용으로 인한 초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와 대기오염 유발 원인적 기여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환실련은 분석했다.

◆고행연료 이동거리 멀어 화물차량운행 과다로 이차적인 대기오염 유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 지역역역을 넘어서 처리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원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역역 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충청권 화력발전소에 고행연료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수도권은 전국 유기성 하수슬러지 발생량 중 최대량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인근에서 하수슬러지 고행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행연료 이동에 따른 이차적인 대기오염 유발은 불가피하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고행연료를 충청권 화력발전소로 운

송하는 거리가 멀고, 많은 물량을 운송하는 관계로 화물차량 과다 운행으로 인한 이차적인 대기 환경오염 유발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이는 막대한 예산차라는 지적과 아울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 또 다른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친환경 정책의 역행적인 사례라고 환실련은 지적했다.

환실련은 “수도권 인근에서 고행연료화 할 수 있는 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지역의 원거리를 이동하여 처리해야 하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정부는 파악하여 이로 인한 문제와 해결안을 충청권역 도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자원재활용 정책이 실천되어야만 자원순환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성일종 의원, 마약퇴치 최우수의원 감사패 수상

### 마약류 범죄 예방 및 퇴치에 대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서산·태안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성일종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마약류 범죄 예방 및 퇴치에 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로부터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바 있다.

또한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문제를 집중거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집중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먼저 알아봐주시고 감사패를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체찍질로 생각한다”며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희 이사장(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은 “성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방교육 및 홍보, 재활 등 대국민 마약퇴치사업이 크게 탄력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이희환 의원, 현대 아웃렛 조성사업 조속추진 건의

### 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5일 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했던 용산동 현대아웃렛 조성사업 조속추진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들었다.

이희환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

서 “용산동 현대 아웃렛 조성사업은 구족·관평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대전의 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무한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 아웃렛이 해외명품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매장을 구성해 기존상권과 중복을 최소화 한다 해도 중·소 상권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지역 상생방안에 대한 답변

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용산동현대 아웃렛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에 대비한 지역 상생방안으로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보장, 지역특산물 판매장 별도 설치, 교통혼잡 해소 방안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환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위,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 심사

### 제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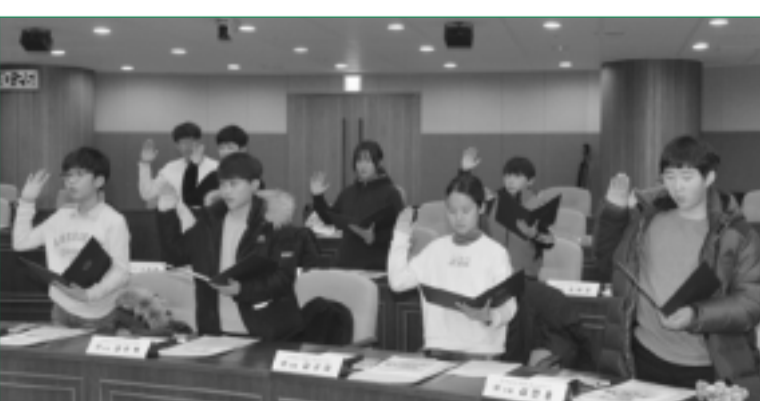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제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4일에 제2차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월 3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전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2017년 임금협약이 11월 10일 합의되어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4,553만 8천 원이 늘어난(0.2%)

8,264억 7,647만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억 4천여 만 원, 교육공무직원 및 출생복지비 9천만 원 등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태환 위원장은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한바 예산 편성 시 세밀한 예측과 추진력 있는 사업 집행으로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을 통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거쳐 1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서천비인초 학생 대상 청소년의회 교실 개최  
충남도의회는 5일 서천비인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원리를 체득하기 위해 추진했다.

### ‘알리’와 함께하는 ‘썩썩’ 선거법 Q&A

▲평소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포함)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게시판, 전자우편, SNS를 이용하여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또는 선거운동정보 게시·전송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자동통보통신 제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  
-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후보자의 성명 등을 사칭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대방에게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042) 471-1390

## 충남도내 일산 정수기·복합기 등 임차료 ‘천차만별’

### 월임차료 제각각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충남지역 일산 학교와 기관에서 임대 사용하는 정수기와 복합기 등의 월임차료가 제각각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내년도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기승 위원장(아산3)은 “기관별 정수기와 복합기 등 임차료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정예산액 73억 2,712만 원보다 11억 5,451만 원이 증액된 84억 8,164만 원이다. 또한 2017년도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되는 유사한 성격의 수용비의 경우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 시 기관 간 활발한 공유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금의 노력과 관심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낙구 위원(보령2)은 “무인경비용역과 유인경비 용역을 병행 실시하는 기관이 많다”며 “기관별로 검토·분석해 고가의 교육기구들이 비치된 곳은 병행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예산 전

액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을 사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전액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라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원에서라도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은 “많은 예산이 드는 차량 구입보다는 예산 절감과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임차료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의원(천안7)은 “지리적 으로 편중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예산과 프로그램 확대로 많은 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복기자

## 윤지상 도의원, 의정보고 토크콘서트 ‘성료’

###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자세로 아산시장에 출마



더불어민주당 윤지상 도의원의 ‘의정보고 토크콘서트’(이하 토크콘서트)가 지난 2일, 남산시립도서관(3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북기왕 시장과 강연회, 윤지상 도의원, 김영애·김희영·성시열·안정현·여운영·조철기 시의원 등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크콘서트에 앞서 윤지상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윤지상도원이 그동안 추진하고 성과를 내었던 교육지원 사업, 갈등관리 사례, 문화 발전 사업 등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 도의원으로 당선된 과정, 지금까지의 소회,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운 점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토크콘서트가 끝나고 난 뒤 별도로 만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윤지상 도의원은 “주말 오전이긴 낯설지만 너무 추워 많은 분들께 알려지지 않았는데,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아울러 가득 채운 시민들을 보며 무한한 책임감도 함께 느꼈다”고 밝혔다.

윤지상 도의원은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어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편히 끝마칠 수 있었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산시의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의미나 문자, “그렇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아산, 더욱 큰 아산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한 뒤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자세로 아산시장에 출마하여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47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조 269억 3,50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경시 의원(자유한국당, 서 2)은 세입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이 향후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 채무 절감이 필요하며 매년 교육

청 평생학습수입 감소에 대비, 감면대상 검토 및 유료강좌수 증설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조원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 4)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학생진로체험학습지원에 공·사립학교 균등 배분지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세종 리더스포레’ 안전특화 아파트로 만든다

안전매트 · 호스릴 소화전 · 비상방송 스피커 등 다양한 안전설계 선보여  
 세종시 2-4생활권 최초 컨소시엄 아파트... ‘피난안전구역’ 설치

12월 초 세종시 2-4생활권 최초의 컨소시엄 (한화건설, 신동아건설, 모아종합건설) 아파트인 ‘세종 리더스포레’가 다양한 안전설계를 통해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아파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고층 거주자들을 위한 피난안전구역이

간에 사다리를 올릴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공기를 주입해 이용할 수 안전매트도 설치 할 예정이다.

현재 시 진압장비와 피난유도장비에는 신속성을 더했다. 모든 층의 옥내소화전에는 호스릴 소화전이 설치된다. 호스릴 소화전은 초기진화를

이 설치된다. 축광식과 광원점등식은 모두 화재로 인한 비상사태 및 정전 시 일정기간 발광이 유지(축광식)되거나 깜박이(광원점등식)도록 한 피난 유도선이다. 여기에 모든 엘리베이터 홀과 특별피난계단 내부 4개층마다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화건설 조성준 분양소장은 “한국이 더 이상 재난 안전지역이 아님이 관명되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 리더스포레는 안전특화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라도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 리더스포레는 한화건설, 신동아건설, 모아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로 최고 49층, 11개 동, 총 118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84-149㎡로 구성됐다. 이미 조망, 환경, 생활편의 시설 등 입지 면에서는 세종시 생활권에서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잠재고객과 투자자들에게 분양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12월 초 분양에 나설 예정으로 현재 정부세종2청사 인근세종시 한누리대로 193에서 홍보관이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HC3블록이 2021년 2월, HO3블록은 2021년 6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1522-0066>



설치된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등의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5동 20층에 설치될 예정이다. 205동은 11개동 중 가장 높은 49층이다. 피난안전구역은 주거용 피난안전구역과 비주거 피난안전구역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이 전 세대 대피공간에

보장하는 가장 최신화된 소화전으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힘든 기존의 소방호스를 보완한 제품이

다. 남녀노소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 초기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장비다. 정전에도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단에는 축광식 피난유도선 이, 대피공간에는 광원 점등식 피난유도선



● 동 정 ●●●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한현택 동구청장은 6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시장에서 열리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

제20기 노인대학수료식



박용갑 중구청장은 6일 오후 3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개최되는 '제20기 노인대학수료식' 참석.

확대간부회의



장종태 서구청장은 6일 오후 5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참석.

산타발대식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6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 산타발대식에 참석.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6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에 참석.

市, '중소벤처 기계부품 기업' 일본 수출 교두보 마련

“다양한 사후관리 지속해 나갈 예정”

대전광역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모노츠크리메칭재팬 2017 전시회와 연계한 일본(도쿄)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75만 달러(약 129억 원) 계약 추진, 1510만 달러(약 166억 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후쿠오카 통상사무소, 일본 일간공업신문사 주관으로 진행된 일본(도쿄) 비즈니스 상담회는 엑스오컴퍼니(주), 브이아이브이인터내셔널(주), 쥘에스텍, 윤슬(주), 쥘광정밀, 쥘엠포텍 등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6개 업체가 참가했다.

모노츠크리메칭재팬 2017은 약 1,000개사의 기업들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 제조업 및 로봇 전시회로 대전의 참가기업 6개사는 제품 및 신기술의 참신함이 돋보여 현지 일본 기업체로부터 상담 약속 및 방문예약이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성과는 엑스오컴퍼니(주)(대표이사 김재경)는 일본의 쥘에스 사와 30만 달러 상담의 정

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쥘에스 이외에도 다수의 일본바이어들이 대리점을 희망하였고, 향후 T사와 50만 달러, S사와 50만 달러 등 수출계약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상담했다.

쥘에스텍(대표이사 조근영)은 장비부품 업체 K사 대표와 이틀에 걸쳐 구체적인 실질적인 상담을 실시해 내달 말 일본바이어가 한국 본사를 방문 수출계약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lot분야 H사와 30만 달러, D사와 20만 달러 등 수출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윤슬(주)(대표이사 신상교)는 진공광학시스템 연구실적 및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바이어들로 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시회로 대전의 참가기업 6개사는 제품 및 신기술의 참신함이 돋보여 현지 일본 기업체로부터 상담 약속 및 방문예약이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성과는 엑스오컴퍼니(주)(대표이사 김재경)는 일본의 쥘에스 사와 30만 달러 상담의 정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S사는 8만 달러 정도의 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제품의 상세자료 및 견적서를 의뢰하는 등 추후 상호 구매담당자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했다.

쥘광정밀(대표이사 강영구)은 금속가공정밀부품제조사인 J사와 산업 금속가공정밀부품 공동제조(기술이전)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하였으며, K사와 8만 달러, A사와 90만 달러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쥘에스텍(대표이사 연용환)은 일본기업 F사와 60만 달러의 상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고 F사는 대리점 계약을 희망했다. 이외에도 10개사 이상의 일본바이어와 상담을 실시해 D사 70만 달러, A사 50만 달러 등 계약을 추진하는 등 향후 일본시장 진출성 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참가업체의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에 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수출상담과 1건의 정식계약 성사 및 샘플판매(견적), 대전 분사 방문 약속 등 향후 일본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일본(도쿄) 비즈니스 상담회를 위해 참가 기업들의 상담회장 및 통역, 왕복 항공료 40%(1사 1인)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BM(Business Model)에 맞는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사전시장성 분석, 사전교육을 통한 맞춤형 통역원들의 1인1사 통역을 실시하여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 김기환 기업지원과장은 "2017 대전 일본(도쿄) 비즈니스 상담회 파견을 계기로 일본 해외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비즈니스 상담회가 실질적인 수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외지사화 사업 및 사후 출장관리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대입 맞춤형 1:1 진학상담 운영

유성구 2018 정시모집 대비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2018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대입 맞춤형 1:1 진학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수능영어가 접대평가로 시행됨으로써 이에 따른 변수에 대비해 기호에 맞는 학교 및 학과 지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는 전문적인 입시 노하우를 가진 현직교사와의 1:1 진학상담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지원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시대비 맞춤형 1:1 상담은, 12월 12일 발표되는 성적통지 후,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유성구 청소년

진로진학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8월 말에 진행된 수시대비 상담과 같이 1인당 40분씩 상담이 진행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영어 접대평가 도입으로 대입지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점수에 따른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수립하는 데 만족할 만한 1대1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상담을 희망하는 유성구 관내 학생(학부모)은 구 홈페이지 및 유성구 앱을 통해 12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과 교육협력담당(☎611-2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봉관 기자

전자통신연구원 총 4500만원 기부



연일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연구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을 지난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4500만원을 모금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11일에는 대전지역 독거노인 및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 60가정에 1천만원 상당의 연탄 1만 8000장을 기탁하고 함께 봉

사활동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1천만원 상당의 김장김치와 쌀을 전달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움의 손길을, 출고 배고픈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어 4일에는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성금 2500만원을 전달, 총 6개 시설에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 다.

송병배 기자

행복나눔 음악회 8일 개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오는 8일 오후 5시 구청 12층 공연장에서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 후원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동구만의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냈던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수혜자들에게는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공연은 ▲지역아동센터연합 단체인 너울까지 중창단 ▲가수 손유상의 통기타 공연 ▲소프라노 이현숙과 손유상의 듀엣 무대 ▲가수 김희진의 포크음악 공연이 준비돼 있어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를 훈훈하게 만드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은 2011년부터 정기, 수시 후원을 통해 23억 여 원을 마련하여 긴급위기가정, 자녀양육지원, 복지정책 의견 등 6만여 명의 주민에게 20억 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달하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시책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영호 기자

중구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행정도우미·복지일자리사업 등 69명 모집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소득보장을 위한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오는 14일까지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사업 등 2개 분야에서 총 69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선정되면 구청과 사업소,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행정도우미는 총 40명으로 종일제 30명과 시간제 10명이며, 복지일자리사업은 29명으로 이들은 각각 행정업무 보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청사 환경정비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

지능특증이 있는 자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타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여성가족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606-7723)나 주소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2018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회를 개최하고 '2018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안전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재난유형별로 피해현황을 분석해 저감목표를 설정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은 크게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등으로 구성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은 지난해 82개였던 재난유형을 ▲ 풍수해, 대설·한파, 가뭄 등 자연재난분야 ▲ 화재, 산불, 감염병, 도로 교통사고, 자살, 식중독 등 사

회재난 및 안전사고분야로 구분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74개 분야로 구성했다.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 재난·사고 유형이 74개인데, 하나하나 시민 안전을 위해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 참석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안전정책 의견을 토론했고, 공유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면서, 재난예방과 대응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영호 기자

2017 전국 세팍타크로 스토브리그 개최

대전광역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목원대학교체육관에서 '2017 전국 세팍타크로 스토브리그'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스토브리그는 공식대회를 마치고 다음 시즌 준비기간 동안 전국 팀 상호 합동교류를 통해 지역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비인기종목의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회이다.

대전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부, 대학

부 25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되며, 3인조 레구와 바운스타크로 2개 종목에서 경기를 갖게 되며 우승, 준우승, 3위2팀에게는 트로피와 시상품이 주어진다.

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세팍타크로는 전국체육대회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세팍타크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엔프렌 enfren.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리얼'스럽게 달리는 기술. enfren 알프스급 효과관? enfren. HANKOOK

# 친환경 먹거리 서울시 상륙 준비 마쳐

## 홍성군-노원구, 4일 오후 3시 도농상생 도농급식 협약식 체결



홍성군이 서울시 노원구에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을 앞두고 4일과 5일 노원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들과 5개 산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제 1회 도농상생 이구동감 소통마당'에 참여했다.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신뢰와 상생의 관계를 맺고 도시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경제 활성에 뜻을 같이하며 서울시장, 홍성군수를 비롯해 5개 자치구청장, 산지 지자체장들이 바쁜 일정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본 행사를 통해 홍성군은 노원구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식은 도농상생을 상징하는 비빔밥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서울시 노원구와 홍성군 간에는 식재료 직거래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육 및 도·농간 교류·체험 등 다양한 인적교류도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4일 15시 20분부터 20분간 이

어진 '이구동감 소통마당'에서 홍성군수 및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 산지 지자체장들은 조화와 화합의 비빔밥 퍼포먼스를 펼쳤다. 서울시(그릇)에 산지(재료)를 담아서 자치구(소비자)가 비빔밥!'은 협약의 의미로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비빔밥은 각 산지의 친환경 식재료를 만들어낸 명품 비빔밥이었다. 비빔밥 재료 중 전국 최초 유

기농특구로 지정된 친환경농업의 메카 홍성군의 명품 유기농 쌀과 홍성의 자존심 한우와 유기 채배면 고사리가 들어갔다. 연이어 홍성군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의 성공사례로 짧은 협업 농업 이상의 강연도 열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홍성군과 노원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농업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농간 연대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은 서울시에서 공모한 '2017년도 하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 서울시 노원구와의 매칭을 통해 지난 9월 공공급식 공급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석환 홍성군수는 "전국 유일의 유기농업특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명품 우리군 농산물이 서울시 공공급식을 통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의 모든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해 가공시설지원, 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 발굴, 수출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차질 없이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성=김정환기자

# 2018년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 청양군, 사업 조기 추진으로 일자리창출 선도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대상 마을을 공모한다.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 선정규모는 2개소 정도로, 청양군은 그간 수요에 맞춰 공모해왔으나 내년도 사업은 조기에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현재 청양군내 마을기업은 9개이며, 올해는 동막골 산야조영농조합법인 1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신청대상은 지역주민 5인이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24시간 이상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군 현지조사 후 충남도 심사와 행정자치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마을기업은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1차 연도 5000만원 이내, 2차 연도 3000만원 이내) 보조금액의 20%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신규로 마을기업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은 군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940-2337)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 아산시보건소 에이즈 예방 캠페인 실시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는 지난 4일, 제30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백 번의 검색보다 한번의 검사'라는 주제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에이즈는 감염 인과의 성관계,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사용,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수혈, 감염된 여성의 임신·출산·모유수유 등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음식물 같이 먹기, 화장실 공동사용 등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올바른 콘돔사

용, 조기검사, 안전한 성관계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 에이즈는 조기 발견 및 빠른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보건 관계자는 "지속적인 에이즈 예방 홍보를 통해 에이즈 예방을 위한 검진과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광혜관리공단 충청지사 사랑기둥 김장담그기 후원

한국광혜관리공단 충청지사는 보령시 성주면 소재 성주지역아동센터를 찾아 200만원 상당의 '사랑기둥 김장담그기' 후원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29명의 아동과 청소년의 따뜻한 겨울나기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후원으로 겨울철 든든한 사랑나눔에 조금의 보탬이 됐다.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힘겨운 역할을 하는 성주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이후 공단 충청지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실천해왔다. 광혜관리공단 충청지사 강철준 지사장은 "앞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후원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지역대표 관광 상품 '공주알밤찰떡' 개발

## 안정적인 판로개척·고부가가치 창출 통한 밤 생산 농가 소득증대 기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대표 특산품인 공주알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육성을 위해 관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공주알밤찰떡'을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주알밤찰떡은 공주

밤연구소와 관내 밤 식음료업체에서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써, 지금까지 상품화를 위한 제품 안전성 검사, 영양성분 검사 절차 등을 완료하고 현재 제품에 대한 시판에 들어갔다. 공주알밤찰떡은 찹쌀떡 안에 밤 한

톨이 쪼개져 들어가 있으며, 화학첨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본연의 밤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열린 제63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객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생산에 사용되는 밤과 찹쌀은 모두 공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환 농촌진흥과장은 "앞으로 가공상품을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것은 물론 공주를 대표하는 지역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이번에 관광 상품 개발을 주관한 공주밤연구소는 민선 6기 오시덕 시장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공주알밤에 대한 가공 및 홍보·마케팅 등 밤 6차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 아산서부신협-신창면후원협약 체결

아산서부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한규)이 지난 4일, 신창면 행복마을추진단(단장 오세홍)과 신창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기장판 5개를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협약은 아산서부신용협동조합 이사들이 저소득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창면을 방문해 협약식을 갖고 전기장판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게 됐다. 김한규 아산서부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사들의 마음을 모아 전기장판을 전달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신창면 행복마을추진사업에 참여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세홍 단장은 "신창면 행복마을추진사업에 동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창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협약과 지원받은 전기장판을 통해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식음료업계 소비자 유혹하는 '크리스마스 한정판' 출시 붐물

## 크리스마스 시즌 겨냥한 이색적인 패키지로 소비자 구매 욕구 자극해

식음료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한정판' 마케팅에 돌입했다. 한정판 제품 출시를 과거 고가의 명품브랜드나 뷰티브랜드 위주로 찾아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식품과 주류업계까지 잇따르고 있다. 식음료업계에서 선보이고 있는 '크리스마스 한정판' 제품은 특정 제품을 한정 기간 동안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샴페인 병 모양의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벨기에 루벤에서 스텔라 아르투아가 크리스마스 축배의 맥주로 처음 탄생했을 당시의 병 모양에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스텔라 아르투아 크리스마스 패키지는 빨간색과 황금색이 조화를 이루는 스텔라 로고,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 문양, 샴페인의 코르크 마개 등이 짙은 초록색 병과 어울려 성탄의 축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750ml 대용량으로 연말 모임에 잘 어울리며 '한정판 크리스마스 켈

리스' 1개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 스텔라 아르투아 크리스마스 한정판은 연말까지 전국 대형마트에서 만날 수 있다. 크리스피 도넛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 크리스마스 신제품 4종을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한정판은 당근조각을 넣은 도넛케이크에 마스코포네 크림과 양송이, 당근모양 젤리 포인트를 준 '스노우 케잌'과 고소한 커스터드 필링을 가득 채운 눈사람 모양 도넛 '하이트 스노우맨', 스트로베리 필링을 듬뿍 넣은 눈사람 모양 도넛 '핑크 스노우맨' 등이다. 스텔라 아르투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맥심 티오와 심플리투스 크리스마스 에디션' 3종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맥심 티오와 심플리투스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을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해 크리스마스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제품 용기에 잘 어울리며 '한정판 크리스마스 켈



스 블랙'의 경우 패키지 색상 배경을 크리스마스의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스텔라 아르투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한정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며,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즐거운 파티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서산시-공무원노조 노사 단체협약 체결

서산시의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시장 및 김선복 노조위원장 등 17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노조에서는 2015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9월 단체협약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지난 10월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합의된 내용은 ▲각종 행사 시 조합원 자율참여 보장 ▲임직 근무 후 대체휴무 시행 ▲비상근무 명령 시 장비 지원 ▲승진 적체 직급 해소 ▲병력 등 연휴근무인

원 최소 운영 ▲각종행사 입장권 강매 금지 등이다. 김선복 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의 권익 신장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2015년 출범 이래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노조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아산폴리텍 듀얼공동훈련센터 '제3차 일학습병행 운영위원회'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철)는 4일, '17년 제3차 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손형도 산학협력처장, 임상규 듀얼공동훈련센터 팀장, 정유정 전 안고용센터 주무관을 비롯해 기업체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 스스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청년취업 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하고, 공동훈련센터 대학에 위탁해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 훈련체제를 말한다.

아산폴리텍대 손형도 처장은 "일학습 병행 분야의 대학교수, 외부전문 인력들을 투입해 기업진단 컨설팅 등 내·외부평가 지원을 통해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훈련에 관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란 중소기업이

아산=리량주기자

미래엔 서해 에너지 '도시가스 봉사의 날' 실시

### 사회적 배려대상 세대 가스안전점검



미래엔 서해 에너지(대표 박영수)는 지난 4일 '제 9회 도시가스 연계 봉사의 날'을 맞아 '사회적 배려대상 세대 가스안전점검' 및 '물품 기증'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엔 서해 에너지는 오는 15일 추가 활동으로 혈액공급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한철중은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기부한다고 밝혀, 추운 겨울 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도시가스 연계 봉사활동'은 전국 도시가스사 임직원 1,200여 명이 전국 3,000여 저소득 가구와 13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무상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점검 및 보수, 물품 기증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진=최근수기자

충청통계청, 형편 어려운 응답가구와 복지시설 전달

### '노노사 합동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책임운영기관 충청지방통계청은 각 부서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5일에는 충청통계청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통계청 노동조합 합동으로 '노노사 합동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각 노노대표를 포함한 90여명의 직원이 약 660kg 분량의 김치를 직접 담가서, 통계조사 응답가구 중 형편이 어려운 23가구와 매월 직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늘사랑이동센터(대전 중구) 및 회덕지역아동센터(대전 대덕구)에 찾아가 전달하고 완료했다.

송병배기자

# 2016년 출생아 기대수명 82.4년

## 통계청, 2016 우리나라 출생아 기대수명 발표... 전년 대비 0.3년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4년, 전년 대비 0.3년 증가했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하는 통계표다. 생명표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4년, 전년 대비 0.3년 증가했다.

2016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르던 남자의 기대수명은 79.3년, 여자는 85.4년이며 전년 대비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증가했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6.1년으

로 전년 대비 0.1년 감소했고 남녀 간 격차는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6년 60세 남자는 향후 22.5년, 여자는 27.2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되며 10년 전 대비 60세의 기대여명이 남녀 모두 2.9년 증가했다.

2016년 출생아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57.9%, 여자 78.4%며, 10년 전 대비 남자는 14.0%p, 여자는 10.4%p 증가했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여자는 2.3년, 남자는 1.4년 더 높았다. 암이 제거된다면 기대수명

(남녀 전체)은 3.9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기대수명은 1.5년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2016년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3%, 심장 질환은 11.8%, 뇌혈관 질환은 8.8%, 폐렴은 7.8%다. 10년 전 대비 폐렴의 사망확률이 5.1%p 증가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뇌혈관 질환의 사망확률이 4.3%p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3대 사인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제거된다면 2016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7.1년 증가할 것이다.

김정환기자

### 아산시, 동절기 산업재해예방 안전점검 및 캠페인

근로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전개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4일 '제 26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겨울철 공사 중인 아산시 배방읍 효성해링턴 플레이즈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결빙으로 인한 전도사고와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아산시와 대

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산업안전분과·기획홍보분과, 효성건설 현장 근로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문화현장 낭독,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인 현장소장이 함께 결의문 낭독으로 산업재해 근절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또한, 아산시청 안전정책팀의 무

재해추진기법인 지적확인 요령과 TBM(터널) 등에 대해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과 함께 현장 무재해를 기원하는 구호제창으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다.

교육 이후에는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아산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아산시 안전문화 산업안전분과 위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공주시, 2017 에너지효율대상 우수기관 선정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위한 사업추진 탁월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충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열린 '2017년 충남에너지효율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7 에너지효율대상은 2017년 한 해 동안 충남 각 시·군에서 추진한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로 평가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가구 대상으로 LED 교체사업을 실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혜택 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주택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설치 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무복합 및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경로당, 주택 등 63개소에 태양광 283kw, 지열설비 806kw를 설치했다.

나무심기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한 탄소중립프로그램 적극적 참여, 청사 건물에너지절감 실시, 가로등 LED 교체,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2018년 지역에너지절약국민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제63회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신재생에너지 이동체험관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는 이미 각종 국민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내년도 사업비 34억 1,900만원을 확보, 공공시설, 주택, 경로당 등 225개소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 771kw 및 지열설비 857.5kw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양이 거래돼 드려져,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인터넷 노후유무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4-30 태평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 대전교육청 '한발교육 대상' 수상자 선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교육진흥 증진을 조성하기 위한 '제28회 한발교육대상'에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발교육대상은 대전교육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발굴·시상하는 것으로 유아·특수교육, 초·중·고등교육, 예·체능교육, 교육행정, 평생교육·교육복지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한발교육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는 ▲유아·특수교육 부문 대전가원학교 교장 최영철 ▲초·중·고등교육 부문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노 ▲중·고등교육 부문 대덕고등학교 교장 맹동술 ▲예·체능교육 부문 충남여자중학교 수석교사 서정희 ▲교육행정 부문 대전교육청 기획조정관 김영섭 ▲평생교육·교육복지 부문 (주)반석(주)해피비오 대표이사 유미영이 선정되었다. 김정환기자

### 2018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논산시, 1월 31일까지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가 논산시(시장 황명선)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 주최로 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김형도 논산시 의회의장, 각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여해 총 6백4십만 원 상당의 성금이 기탁됐다.

▲오비맥(주) 충남남부지점(지점장 이경화)에서 연탄(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으며, ▲MG늘피새마을금고(이사장 김인규)는 한글대학 어르신들에게 바인더 2,500개(1,000만원 상당)를 ▲백제종합병원은 성금 5백만 원과 백미 10kg(500만원 상당)을 ▲대전충남유류협동조합(조합장 김영남)은 성금 500만원을 기탁해 이웃사랑의 열기를 더했다. 논산=김태선기자

### 백월산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사전조사

청양군, 등산객들의 안전 위해 실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월까지 백월산 주요 등산로에 2018년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조사반을 편성해 기존 산악표지판을 찾아 확인하는 등 국

가지점번호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 내년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 들뜬 등의 비거주지역이나 기존 등산로의 위치표시에 대해 지점번호체계를 통일시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 등 소방, 경찰 등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국가표시체계다.

이 번호판은 멀리서도 등산객의 눈에 잘 띄울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지주 상단에 노란색을 바탕으로 지점번호 숫자와 등산로 지점번호가 표기돼 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백월산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신속히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뉴질랜드 로토티아 머드토피아 성공적 개최

배재대, 성공의 밑거름으로 작용...국제적 명성



'축제교육의 메카'로 꼽히는 배재대가 지난 1~3일(현지 시각) 뉴질랜드 로토티아에서 열린 머드토피아 페스티벌(Mudtopia Festival)은 충남 보령머드축제에서 영감을 받아 열린 남남구 최초의 머드 축제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뉴질랜드 로토티아시, 보령머드축제, 세계축제협회(IFFA) 한국지부 간 체결된 국제 공동 이벤트 파트너십에 따른 것이다. 올해 보령

머드축제기간 중 스티브 채드워 로토티아 시장 일행이 방문해 보령머드축제 수습에 협의를 하기도 했다. 정강환 원장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머물면서 행사 운영 및 행사장 배치, 보령머드축제 전시 콘텐츠 등 행사 전반을 컨설팅했다. 지난달 말엔 배재대 관광경영학과 석사출신인 남길현 배재대 관광지역을 살리는 축제연구소 팀장과 유효상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기획팀장, 배재대 대학원생인 이신혜, 최예진 씨가 인턴으로 참여해 축제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들은 뉴질랜드 현지실정에 맞는 전시부스 디자인 접수 및 설치, 머드축제 에어바운스 구역 운영 방안, 공식 개막식 및 주요 행사 등, 보령머드축제 전시부스 현장 운영 등 전반에 관여했다. 이정복기자



### 예산췁, 교통안전 교육 ‘큰 호응’

예산우체국 집배원 및 택배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예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4일(월) 예산우체국 회의실에서 예산우체국 집배원 및 택배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졸음운전 방지, 2차 교통사고 예방, 3대 교통안전 근절을 위한 당부 등 교통안전 교육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강의가 끝난 후 집배원 및 차량운전자들의 교통에 관한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시간을 가져 교통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관호는 “앞으로도 지역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예산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 기산면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관내 기관·단체장과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 참석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5일 오전 11시 서천소방서 기산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박래 서천군수, 서영달·조희환 도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산면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숙재 초대 신입대장 등 19명의 정예대원으로 구성된 기산면 여성의용소방대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시 119 소방대원과 협력하여 구조 및 구조활동에 앞장서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희망 전달

서대전우체국, 희망복지사업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전달

서대전우체국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2명에게 지원금 178만원(생계비 100만원, 의료비 78만원)을 전달했다.

우체국 ‘희망복지사업’은 정부의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해 지역 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자 중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나 배우자의 장기적인 입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 다른 대상자 B씨는 차상위계층으로 건강상(신장, 심장) 문제 때문에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병원비로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이다.

서대전우체국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중촌동주민센터, 석교동주민센터와 함께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체국희망복지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송병배기자

### 다중업소 2년 1회이상 보수교육 홍보

태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특별법 개정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 안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법(2015년 1월 20일 일부개정)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2016년 1월 21일 이전 완비증명서가 발급된 대상처에는 2018년 1월 20일까지는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태안=김정현기자

# “중국 여행때 시 인체감염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가금류 접촉 주의·생가금류 시장 방문 자제해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와 윈난성에서 시 인체 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때 생 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달 7일 A(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했고,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발생했다.

A(H5N6) 인체감염 사례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사망 10명)했고,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 신규 환자 발생으로 현재까지 총 18명 발생했다(모두 중국에서 발생, 사망 10명). A(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20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했다(사망 288명).

A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시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

며, 중국 시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시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역법 41조에 따라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김태선기자

## 한밭대 총동문회 ‘2017 한밭 친선 동문의 밤’ 개최

학과·직장별 화합과 친교의 시간 진행 예정

한밭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김만규)가 오는 7일(목) 저녁 6시 대전 서구 오례리웨딩에서 ‘2017 한밭 친선 동문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하영 총장을 비롯해 강홍식 명예총장, 설동호 명예총장(대전광역시 교육감)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에서 한밭대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들에 대한 ‘지랑스런 한밭인상’ 시상, 공로패 전달, 학과·직장별 화합과 친교의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랑스런 한밭인상’ 수상자는

자로 결정됐다.

한편, 한밭대 총동문회는 2017년 한밭대 개교90주년을 맞아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한밭대 총동문회 재재학 사무총장은 “8만여 동문의 네트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사이버 동문회 활성화, 동문기업 활성화, 학과 동문회 활성화 등 젊고 역동적인 동문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동문 선후배간 함께 어우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동문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대전시, 공개공지 점검결과 위반사항 시정조치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은 건축법 위반한 19개 시설 적발

대전광역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대지내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축법을 위반한 19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적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개공지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 15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실시

했다. 시는 지치구와 합동으로 7개 반 2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공개공지 내의 판매영업장 사용, 출입 차단, 조경 및 시설물 훼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시설물 훼손이 8건으로 적발된 전체 19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판매영업장 위 7건, 주차장 등 타용도 사용 2건, 출입차단 1건, 무단증축 1건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공개공지의 사적활용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건축주 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공개공지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문 등 배포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공개공지로서의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한 방침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공개공지가 비록 개인소유지라도 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된 공적공간인 만큼 사적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 정기점검 확대 및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공개공지 본연의 공공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 내년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전면 시행

아산시, 개정된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으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개정 주차가능 표지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주차가능)			표지 색상 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주차가능)			표지 색상 변경

아산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는 2017년 1월에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되는 ‘보행장애’ 장애인 기준표가 개정되어 오는 2017년 1월부터 교체발급을 실시해 왔다.

2017년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 표지가 ▲사각모양에서 원모양으로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주차위반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행위 경우 50만원,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장애유형 및 등급은 지체장애 상지 1-5급, 하지 1-5급, 척추장애 2-5급, 변형장애 5급을 비롯해 뇌병변장애 1-4급, 시각장애 1-5급, 청각장애 1-4급, 심장장애 2급, 심장·호흡기·간장애 1-2급, 장루·요루장애 2급, 지적장애 1급, 지체성장애 1-2급, 정신장애 1급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540-2776)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관)는 민간자율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고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사용법 등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무교육장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관련,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아산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실무교육장은 기존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의존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 관계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41-538-0265)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 청양소방서, 화재예방대책 추진

겨울철 맞아... 주거용 컨테이너 가구 대상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관내 주거용 컨테이너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소방안전대책을 펼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주거용 컨테이너 가구 방문 화재위험요인 제거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설치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소방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전개한다.

김장현 현장대응단장은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에서는 대개 겨울철 난방을 위해 보온덮개 등 가연성 난방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며 “이런 용품들은 특히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교육 등의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 충남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겨울방학기간...도정 참여와 사회생활 경험 기회 제공

충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대학생들에게 도정 참여와 사회생활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키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내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공휴일을 빼고 23일 간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이며, 지급 급여는 중식비를 포함해 1인당 17만 6980원이다.

이 기간 아르바이트생들은 도시사와 간담회, 도정 주요 현장 탐방, 봉사활동 등 도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내포=김정현기자

# 구직자 45% “부모님 관심·조언 부담돼”

## <커리어>조사결과... 자신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여 직장을 선택할 것

취업준비생 448%는 부모님의 관심과 조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앞으로 자신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여 직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구직자 563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의 취직 관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5%가 ‘구직활동 시 부모님이 관여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부모님이 관여한 부분으로는 ‘취업 준비 계획을 부모님에게 알렸다(30.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채용 전형에 통과하거나 최종 합격을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다(19.4%)’, ‘지원자를 넣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한다(16.5%)’, ‘지원할 회사를 부모님이 직접 선정/권유해준다(11.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부모님이 나 대신 기업에 채용 관련 문의를 했다’는 답변도 2.3%나 됐다.

부모님의 관여가 구직활동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자 응

답자의 448%가 ‘부모님의 관여/조언/도움이 부담이 돼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25.4%)’, ‘구직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17.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1.9%)’ 순이었다.

그 결과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직장을 선택하거나 입사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여 결정하겠다(61.8%)’라고 답했다. ‘부모님과 자신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겠다’는 36.1%였고 ‘자신의 의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한편 구직기간 동안 운운이나 생활비는 ‘아르바이트와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한다(41.9%)’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혼자 해결한다(36.9%)’, ‘부모님에게 받아서 쓴다(2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복기자

# 변호사가 들려주는 학부모 인권교육

공주교육지원청, 영화 ‘재심’의 박준영 인권변호사의 “변화 그리고 희망”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5일 대회의실에서 공주 관내 학부모 및 교육회장 6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정립하고, 학부모의 인권 감수성 향상시키고자 영화 ‘재심’의 실제대본을 알려준 박준영 변호사를 특별강사로 초빙했다.

풍부한 경험에 의한 다양한 사례에 기반한 인권교육이 준비되어 학부모들의 기대를 모았다.

‘변화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개인과 사회의 변화과정 그리고 그 근거가 되었던 희망에 대한 인권이야기로 고졸 출신, 파산한 변호사를 거쳐 주목받는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시련과 성장 과정, 다양한 변호 활동에 관한 사례 중심 강연으로 부모답게 자녀에게 인권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공주=정성범기자



**서산서림유치원, 청렴·인성조화 운영** 서산서림유치원(원장 한근)은 지난 4일 신채동실에서 12월 청렴·인성조화 및 꿈과 끼 예술 발표회를 운영했다. 청렴·인성조화는 서산서림유치원에서 원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며 또한 계기교육을 통해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대한민국 안전교육 선도한다

티칭하는 선생님에서 코칭하는 선생님이로 가는 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조치원대동초등학교에 구축된 안전체험교실을 관내 학교로 개방하고, 안전행복담게를 제작·배포하는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완강기·화재대피·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악물중독 등의 과정을 체험중심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을러, 2018년에 늘봄초등학교, 새롭초등학교, 새봄초등학교를 추가로 안전교육 중심학교로 지정하여 동지역 학생 안전교육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안전행복담게를 제작·배포했다.

세종=이정복기자

# 한밭교육박물관, 꿈과 끼 탐색 기회 제공

중·고 대상 박물관 관련 직업세계 속으로



한밭교육박물관관장 곽석환은 지난 9월까지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6개교 14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진로 미니강좌’를 운영, 학생들에게 박물관 관련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꿈과 끼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에게 맞춤형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전 중, 보문고, 대전대동, 대전봉산중, 한밭중, 대전신산중 학생들은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진로 미니강좌 수업을 통해 박물관 관련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편, 한밭교육박물관에서는 2018년에도 소규모 단체 지원을 위한 진로 미니강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밭교육박물관 김미란 학예연구실장은 “박물관의 인·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관심 있는 학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견학 다녀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견학했다. 아쿠아리움 견학은 아이들에게 책에서 배우는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을 통해 해양생물 및 동물에 대한 신비함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

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 가족부와 대전시가 주관하는 곳으로 초등4~6학년 대상(30명)으로 다양한 교육과 생활 등을 연간 지원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 영어교사 대상 “수업나눔 Talk! Talk!”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내 영어교사 간 소통·공감할 수 있는 장 마련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에서는 제 1회의실에서 학생중심 영어수업모형을 공유하고, 관내 영어교사 간에 소통·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업나눔 Talk! Talk!”를 실시했다.

논산·계룡 지역 실용영어 지원단 펌버인 영어교사 김연섭(대전중), 김효순(노성중), 윤정원(논산여중), 주재희(웅남중), 김서영(계룡중), 김상영(웅남중), 허은영(웅남중)가 개별 부스를 운영하며 ▲스마트폰 기반 스마트 영어 수업 ▲Think Process 협동학습 ▲게임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연습 ▲학생중심 활동형 프로젝트 ▲과정중심평가 ▲Globalization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Visual Thinking을 통한 문법학습과 같은 수업모형을 관내 영어교사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논산=김태선기자



**한산초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 김장데이’ 행사 실시** 한산초등학교(교장 변승연)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급식실에서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 김장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드론교육아카데미-이산폴리텍대학교

# 상생 발전 위한 상호 드론 교류협력 체결



이날 가진 협정식에서 드론아카데미와 폴리텍대학은 최근 우리생활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을 통한 활용도를 인지도하고, 상호간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기로 하고, 드론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드론의 종류 및 구조, 비행원리, 항공사정 및 영상촬영 방법 등을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이상훈 한국드론교육아카데미원장은 협정식에서 “앞으로 드론의 활용도는 상상을 뛰어 넘게 되며, 특히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과 방송영상과 학생들이 기존의 카메라와 광중 촬영용 드론을 접목하면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충남도교육청, 올해 재정평가 전국 3위 달성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이하 재정평가)’에서 전국 3위(도단위 교육청 중 2위에 올랐으며,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5일 밝혔다.

재원 확보 및 배분,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전반을 평가한 재정평가에서 충남교육청은 10개 평가항목 중 8개 항목에서 도단위 교육청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아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과는 평소 각 부서별, 업무별 자체 분석과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개선하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평가 결과, 도교육청은 재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영역 중 중기교육재정계획의 면밀한 수립과 총액인건비 등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적 운영, 안전예산 및 예산 조기집행, 지방교육재정 확보 노력, 의무지출 예산의 적정성 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영역 중 적정규모 학교 운영 분야와 투자심사사업 관리 분야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수한 분야는 더욱 내실을 다져 추진하고, 일부 미흡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2017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금산교육지원청 “재미있는 게임 이용...아이들과 친밀감 형성하기”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진) Wee 센터는 5일 금산학생상담자원봉사자 7명과 금산Wee센터 전문인력 5명을 대상으로 상담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대전 아동가족상담센터 참사랑 김은희 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교부적응 및 문제 행동을 보

이는 학생에 대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김은희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게임놀이치료’를 활용하여 학생들과의 친밀감형성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 특 정 •

2018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6일 오전 9시 30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2018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오후 2시 천안한빛초에서 열리는 『천안한빛초등학교 교교식』에 참석하고, 오후 4시 10분에 사회복지시설(천안, 영서원)을 방문.

공주대학교사범대학 특강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6일 오후 3시 공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공주대학교사범대학 학생을 대상 특강.

평창동계올림픽성화 봉송



김석한 홍성군수= 6일 오후 6시 여하장에서 실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및 축하 행사에 참석.

# “국방산단, 자주국방·지역성장 동력될 것”

## 道,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용역 최종보고·토론 진행

충남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발계획 및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안희정 지사,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민 국회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득 계룡시장 및 황인우 전 국방부차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국방산업 발전 자문, 지역 국방 인프라와 연계한 충남 국방산업 클러스터 육성, 국방 관련 공공기관 및 국내·외 방위산업체 유치 지원 등 응원역할을 맡고 있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15년 출범해 올해 위원 전원이 재위촉됐으며, 김종민 국회의원, 박래호 전 국방부 정보기획관,

문병선 서원대학교 교수를 신규로 합류, 인력 풀이 확대됐다.

이날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충남 국가 국방산단 조성 개발용역 최종 보고’와 향후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등에 관한 자문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최종 보고에서는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이 대거 보완된 국방 국가산단 조성 계획(안)과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별도 분석과 국방산업단지의 도입가능 등이 제시됐다.

보고에 이어 최종용역 결과 및 향후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안건으로 자문과 토론이 진행, 충남이 국방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실시계획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지정건의를 신청, 2019년 말까지 국가산단 지정을 이끌어내려는 복안이다.

안 지사는 “높은 수준의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효율적인 획득과 안정적 성장은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확실한 기초”라고 전제한 뒤 “(그런 의미에서) 충남 국방 국가산단 조성은 충남도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향한 대한민국의 사업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사는 “충남은 3군부부와 논산훈련소, 국방대학 등 대한민국 국방력의 중심”이라며 “여기에 비무기체계 중심의 충남 국방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방 국가산업단지 지정용역, 전력지원체계 관련기관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국방관련 기업대상입주수요조사 및 홍보를 위해 실무 TF팀을 운영 중에 있다.

김정환 기자

# 세종시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5일 세종시민회관에서 관내 관광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세종시가 주최하고 (사)세종시 관광협회(회장 강대철)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세계 관광의 날(9월 27일) 기념식과 함께 관광종사자의 잘못된 언어 습관 바로잡기, 친근하게 다가가는 언어 기법 등에 대한 관광 서비스 교육이 진행됐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시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 종사자 10명에게 세종시장상과 한 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상, 세종시 관광협회장상 등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관광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정환기자

## 예산군, 2018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국비 3억 확보

# 시·군간 공간정보 격차 해소

예산군은 5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050 매칭방식으로 발주하는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사업으로 약 30km<sup>2</sup>(120 도엽)에 해당하는 사업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결과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3억을 확보한 것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억을 확보, 국토지리정보원과 총 16억 원의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6년 11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올해 사업분인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예산군 25.0km<sup>2</sup>(100 도엽)에 해당하는 수치지형도를 올해 11월 준공 처리했다. 올해 4월에도 2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27.3km<sup>2</sup>(109 도엽)에 해당하는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있다.

예산=양성업기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이란 지형도면을 디지털 형태의 지형도로 제작해 고 품질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위치기반으로 지형, 건물, 도로 및 7대 지하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계획 및 군 관리계획 등의 기본도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다.

민원봉사과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확보를 통해 제작하고 있는 수치지형도 구축을 통해 시·군간 공간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정책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군 전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년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홍성군 동물복지 시책 첫발

## 김석환 군수, 직접 동물복지형 돼지농장 살펴

김석환 홍성군수는 오는 5일 오전 10시 동물복지농장 공개에 따른 성우농장과 마을 방목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어려움과 안전 축산물 생산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축사 신축에 따른 반대, 악취 민원 등 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마을과 공존하는 축산업 현장을 찾아 나선 것이다.

마을 인근에 위치한 성우농장(대표:이도환)은 마을사업으로 돼지 방목장을 제안 했고 부녀회가 공동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소득사업을 위해 로

컬푸드 사업 등 제안중이다. 이날 이도환 대표는 마을과 축산 상생방안, 동물복지 확산을 위한 모델화 제시, 소비자와 소통하는 농장에 대하여 소개했고, 마을주민이 직접 키운 방목돼지로 시식회도 진행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홍성=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2050년 석탄화력 0% ‘탈석탄 완성’

## 에너지전환비전 수립 최종보고… 별빛 가득한 충남 비전 제시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비전이 제시됐다.

오는 2050년 충남도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절반 가까이 늘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3기 충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과 에너지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토론·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에너지전환 비전은 기후변화와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지역 환경 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기후·에너지 정책 구상 필요성에 따라 수립 추진 중이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분권을 추구하고, 안전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체계를 지향하며, 국가 에너지 체계 전환 과정을 준비하고 선도한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충남연구원 최종보고회에서 ‘에너지 시민이 만든다, 별빛 가득한 충남’을 에너

지전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비전은 도민 에너지기획단이 3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최종 선택한 ‘에너지 시민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비전에 따른 목표지표, 2015→2050년은 △발전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9424만 2000→1919만 4000톤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460→200μg/m<sup>3</sup> △공공체 에너지 지원 0→1000건 △100% 재생에너지 자립 선언 시·군 0→15개 등으로 잡았다.

또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는 16.2→14.3TOE △부가가치당(10억 원) 최종에너지 소비 344.1→183.6TOE △전체 발전량 중 석탄 발전량 비중 87.8→0.0%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7.7→47.5% 등도 목표로 설정했다.

에너지전환 비전 6대 원칙으로는 △에너지를 덜 쓰면서 에너지 서비스를 향유하자(소비 절감) △석탄 시대를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시대로 나아가자(공급 전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자(에너지 기업) △시민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자(에너지 분권) △칸막이를 넘어서, 에너지 의존적인 삶

의 양식을 바꾼다(에너지 문화) 등을 내놴다.

전략별 실천과제를 보면, 우선 △탈석탄을 준비하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등을 ‘재용’ 전략으로 담고, ‘키움’ 전략에는 △사람이 에너지다 △시민 자산을 만들자 △충남형 에너지 사업을 개발하자 △충남 에너지 지역기업을 키우자 등을 포함했다.

‘비움’ 전략으로는 △비산업 부분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산업 부분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나눔’ 전략은 △에너지전환에 투자하자 △에너지복지를 확대하자 등이다.

도는 이번 비전을 확정하는 대로 선포식을 갖고 비전을 안팎에 알릴 계획이며,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 조례 개정 및 에너지기금 조성 등 정책 역량 강화, 에너지 사업 공모 등 에너지 전환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궁영 부지사는 “도는 그동안 공정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신 중립발전 정책 담론으로 제안해왔으며, 에너지 계획과 관련한 도민 및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협력에 기초한 장기 전략 필요성에 따라 이번 비전을 수립해 왔다”며 “도내 이끈다(에너지 시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자(에너지 분권) △칸막이를 넘어서, 에너지 의존적인 삶

김정환 기자

## 휴지통 없는 깨끗한공중화장실 운영

홍성군은 공중화장실 내 악취 및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휴지통을 제거하는 등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만들기에 앞장선다.

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내 62개 공중화장실 내 대변기 칸에 비치되었던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실 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청소 등의 용무로 출입할 경우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휴지는 변기에 버리기, 기타이물질은 변기에 넣지 않기 등의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화장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변기 칸내 휴지통을 없애는 것은 청결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시행 초기 일시적인 혼란과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화장실 이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홍성=김정환기자

**HYUNDAI**  
POWERTECH

#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합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되었던 차량은 모두로 자동차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신뢰를 받고, 동력저항의 출력을 높이는 행복한 자동차를 향유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에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우리/동/네

### 멜감 나눔으로 동장군 극복한다

당진시, 관내 취약계층에 사랑의 멜감 전달

당진시가 5일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관내 취약계층 10가구에 겨울철 난방용 멜감 10여 톤을 가정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사랑의 멜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시가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숲 가꾸기 사업과 벌채 사업 등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원목을 수집해 마련됐다.

이처럼 산림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원목을 버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활용하면 이웃사랑 실천은 물론 다양한 효과가 있다.

우선 산불 인화물질 제거로 산불예방 효과가 있으며, 병해충 유인목 제거를 통한 병해충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집중 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는 등 1석 5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부산물을 멜감으로 재활용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며 "비록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사업 중 발생하는 원목을 모아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산림사업 중 발생한 원목 30여 톤을 마련해 관내 취약계층 7세대에 제공한 바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소셜미디어 2년 연속 대상 수상

태안군, SNS 통한 군정홍보 성과 인정받아

태안군이 한국 소셜미디어진흥원이 주관한 '2017년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지난 22일 서울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 올 한해 군정 및 문화관광분야 홍보에 앞장선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대상은 지난 1년간 각 지자체 및 기업 등 단체가 추진한 공식 SNS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군은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태안TV 등 SNS를 활용해 태안의 관광자원 및 먹거리 등을 적극 알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감각적인 영상과 VR, 웹툰 등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지역 축제와 각종 공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군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홍보매체를 더욱 늘리고 보다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태안군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차별화되고 품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해 방문객 유치와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소셜미디어가 태안군 홍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 청양군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청양군 남양면(면장 이원익)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고, 10만원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원 남양면장은 "연말연시 잦은 모임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면서 "체납세금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라 자진납세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어린이에게 사랑을 선물하세요"

당진시 송악읍 선물트리 장식 화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당진시 송악읍사무소 실내 현관에 특별한 트리 장식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진시 송악읍에서는 장식용으로 설치하는 트리 대신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물 트리를 설치했다.

이동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기 위해 마련된 선물 트리에는 과자와 장난감, 인형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이 함께 장식돼 있다.

읍사무소에서는 이달 23일까지 선물 트리에 놓인 선물들을 모아 크리스마スイ브인 오는 24일 지역 봉사단체들과 함께 대상 아동들이 있는 가정에 배달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국제슬로시티 태안 출범 선포식' 가져

태안군, 국내 도시 중 12번째 가입 · 미래형 국제 선진 관광지로 발돋움 기대



지난 5월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태안군이 슬로시티 출범을 공식 선포하고 세계적인 미래형 선진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태이 프를 끊었다.

군은 지난 5일 군청 대강당에서 한상기 군수와 이용희 군의장,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 지역 국회의원, 도 · 군의원, 각급 사회단체장, 타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슬로시티 태안 출범 선포식'을 갖고 관광 태안의 새로운 이름이 될 '슬로시티 태안'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다고 밝혔다.

슬로시티(Slow City)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두고 여유로운 삶을 통해 느낌의 미학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으로 이 달 현재 전 세계 30개국 235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서해안의 대표 휴양관광도시인 태안군은 민선6기 국회의원, 도 · 군의원, 각급 사회단체장, 타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슬로시티 태안 출범 선포식'을 갖고 관광 태안의 새로운 이름이 될 '슬로시티 태안'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태안군립합창단의 식전공연과 슬로시티 비전 보고, 인증서 · 인증패 전달, 감사패 시상, 출범 선포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청 정문에서 슬로시티 태안 현판식이 진행돼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태안군은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편안한' 태안 12번째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선포식은 태안군립합창단의 식전공연과 슬로시티 비전 보고, 인증서 · 인증패 전달, 감사패 시상, 출범 선포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청 정문에서 슬로시티 태안 현판식이 진행돼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태안군은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편안한' 태안 12번째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선포식은 태안군립합창단의 식전공연과 슬로시티 비전 보고, 인증서 · 인증패 전달, 감사패 시상, 출범 선포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청 정문에서 슬로시티 태안 현판식이 진행돼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태안군은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편안한' 태안 12번째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선포식은 태안군립합창단의 식전공연과 슬로시티 비전 보고, 인증서 · 인증패 전달, 감사패 시상, 출범 선포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청 정문에서 슬로시티 태안 현판식이 진행돼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태안군은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편안한' 태안 12번째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선포식은 태안군립합창단의 식전공연과 슬로시티 비전 보고, 인증서 · 인증패 전달, 감사패 시상, 출범 선포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청 정문에서 슬로시티 태안 현판식이 진행돼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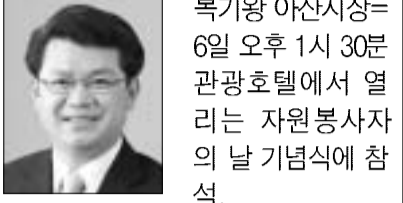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태안군은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편안한' 태안 12번째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선포식은 태안군립합창단의 식전공연과 슬로시티 비전 보고, 인증서 · 인증패 전달, 감사패 시상, 출범 선포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청 정문에서 슬로시티 태안 현판식이 진행돼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태안군은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편안한' 태안 12번째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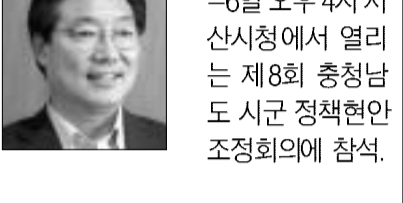
### 동정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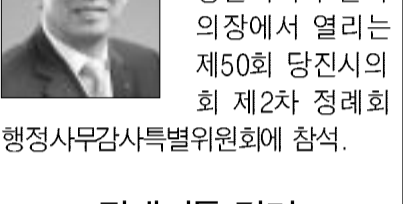
북기왕 아산시장=6일 오후 1시 30분 관광호텔에서 열리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책현안 조정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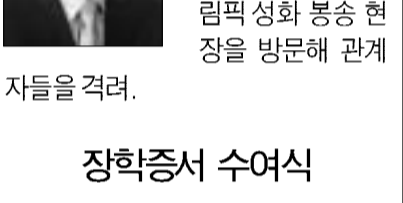
김홍장 당진시장=6일 오후 4시 서산시청에서 열리는 제8회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에 참석.

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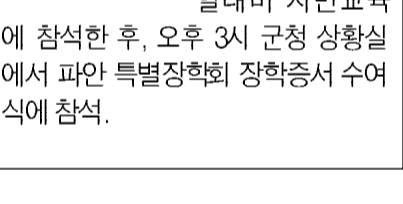
이종윤 당진시장=6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

관계자들 격려



한상기 태안군수=6일 오전 9시 태안읍 일원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

장학증서 수여식



이석화 청양군수=6일 오전 11시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한국자유총연맹 통일대비 시민교육에 참석한 후, 오후 3시 군청 상황실에서 파안 특별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 온양1동 사랑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아산시 온양1동 행복마을추진단(단장 원광옥)은 지난 4일,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의 복지허브를 추진하고자 도움이 필요한 홀몸어르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행복마을 모니터링 실시 중 질병으로 집안 정리 및 청소를 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홀몸어르신이 있어 전안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연계해 실시하게 됐다.

원광옥 온양1동 행복마을추진단장은 "관내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전안보호관찰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온양1동 복지허브를 위해 행복마을추진단이 앞장서 맞춤형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안보호관찰소는 2013년 5월부터 사회봉사자원이 필요한 개인단체들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인력지원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소중한 의견, 좀 더 가까이서 듣겠습니다"

청양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열려



##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임시개소 '현판식'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 현판식이 지난 4일, 아산시보건소에서 열렸다.

## 청양군 청남면 · 남양면 동절기 경로당 안전점검

청양군 청남면과 남양면은 겨울철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방인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청남면(면장 최을락)은 오는 19일까지 관내 경로당 27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폭설 · 혹한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소방 · 전기 · 가스 안전관리 및 겨울철 긴급 재난안전 등 시설안전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어르신 건강관리대책 등 일상생활 분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을락 면장은 "겨울철에는 전기 및 전열기구 등 철저한 점검과 안전점검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경

로당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며, 어르신들 또한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남양면(면장 이원도)은 오는 18일까지 관내 경로당 40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면은 동절기 증가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경로당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또한 현장에서 직접 건의사항을 접수해 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장과 함께 즉석에서 답변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다음 이동군수실 개최 시 따로 정리해 직접 설명하기로 약속했다.

이석화 군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의 기탄없는 의견 덕에 우리 군 행정도 발전할 수 있었다"며 "행정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견을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현지 출장을 통해 처리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에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아산시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정식 개소 전 까지 치매환자 및 가족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찾아와 상담 및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종합서비스 치매예방센터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기봉 아산시보건소장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치매예방 · 돌봄 · 치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치매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것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아산시 보건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공하고자 ▲폭설 · 동파 · 난방관리 등 겨울철 재난안전 분야 ▲소방 · 전기 · 가스안전관리 분야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 면장은 "겨울철 더 큰 한파가 오기 전 현장 점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통정

머드토피아 축제교류전 참가



김동일 보령시장 = 6일까지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열리는 머드토피아 축제교류전 참가.

정책연안조정회의



이완섭 서산시장 = 6일 오전 11시 아르텔 웨딩 홀에서 열리는 서산시장 애인 보호작업장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 오후 3시 서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연안조정회의에 참석.

특성화고 성과보고회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6일 오후 2시 40분 고마 컨벤션에서 열리는 2017학년도 특성화고 성과보고회에 참석.

교육홍보 업무담당자 연수



조민행 보령교육장 =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2017 교육홍보 업무담당자 연수에 참석.

이관형 氏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탁

공주시 신평면(면장 양승희)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관형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12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관형 회장은 성금을 관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경로당별 각 30만원씩을 기탁했으며, 신평노인복지회관에도 운영비 및 난방비 330만원을 기탁했다.

이에, 각 마을 경로당 회장 및 신평면 노인회분회(회장 이인식)는 뜻있게 기탁한 소중한 기탁금을 관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환영과 감사의 입장을 보였다.

양승희 신평면장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미있는 성금이였다"며 "기탁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5S5품 One 프로젝트 추진 '성과 톡톡'

서산시, 다양한 아이디어 중심 창의적인 시책 적극 발굴 추진

서산시가 시민중심의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한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초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두고 생산적이고 현장·대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는 '5S5품 On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시민 눈높이에 맞춰 유연한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공직 혁신운동인 5S5품의 가치가 접목된 창의 과제를 찾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한 ON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확실성을 평가해 우수과제 7개를 선정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평가위원회의와 내부직원 평가를 병행했다.

양성평등과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으로 소통·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 선정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 육성 등이 꼽혔다.

또 발표행정으로 25개 기업 유치, 관광자원의 모바일 판매 및 홍보, 서산한우 전국 대표 브랜드 도약, 집단민원 사전 관리로 갈등 심

화·장기화 차단, SNS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환경민원 즉각 처리로 갈등요인 해소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에도 발굴된 우수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보완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사회,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높아진 시민요구와 기대수준에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도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산시가 올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시민 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

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연계한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사회,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높아진 시민요구와 기대수준에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도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우자 복지수당(월 10만원)을 신설했으며, 보훈명예수당도 지급 범위를 넓히고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등 전국 최고의 보훈복지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4개 유형 29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경로당 신축·보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독거노인공동생활체 7개소를 조성하는 등 활기찬 노후를 돕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1550세대에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고 응급상황발생 처리율 100%에 이르는 도내 최고 수준의 응급안전센터를 구축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생선품 구매율을 높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시책 물론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1,400여명이 취업했으며 아시아 음식전문점인 '아시아-국'에서는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돕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여성친화적 문화 확산과 실질적인 남녀평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맞춤형 청소년 활동과 내실 있는 보육환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행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재)공주시한미음장학회,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발전 우수 인재육성

(재)공주시한미음장학회(이사장 오시덕)는 지난 4일 지역인재 선발 및 육성을 위한 2017년도 제3회 (재)공주시한미음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안 △(재)공주시한미음장학회에산 변경안 △2018년 (재)공주시한미음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및 예산심의안 △(재)공주시한미음장학회 임원 선임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시덕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이 사님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장학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 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특기장학생, 다문화가정자녀 장학생 등 모두 96명이 선발돼 총 5890만원의 장학금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재)공주시한미음장학회는 2018년도 장학사업으로 성적우수 장학생 등 475명을 선발해 4억 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생이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공주=정상범 기자

금산군보건소,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무료 치매조기검진

금산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는 만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무료 선별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만75세가 되는 노인 및 만7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치매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 중이다.

군에서는 보건소 치매선별검진 결과 치매위험이 높게 나타날 경우 지역내 협활병원(푸른신경과)로 연계해 진단검사, 두부CT 촬영·혈액 검사 등 정밀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검진을 받을 경우 진단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치매는 뇌 질환 또는 뇌 손상 때문에 뇌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 치료를 받으면 중증치매로의 진행속도를 최대한 지연시켜 치매환자의 건강악화 및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깜깜깜깜하는 기억력 감퇴, 이상행동의 장애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며 치매가 격정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로 방문해 검사를 받아 볼 수 있다.

군보건소에서는 치매무료선별검진 외에도 치매환자의 치료비지원, 등록관리, 위생용품 제공(거치기 등),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치매무료선별 검진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은 금산군 보건소(041-750-4352-4) 또는 연중24시간 운영되는 치매상담센터(1899-9988)에서 언제든지 상담해준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com



보령머드축제 세계화 뉴질랜드서 첫 결실

뉴질랜드 제1회 로토루아머드토피아 성료

보령시는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뉴질랜드 로토루아시를 방문해 역사적인 제1회 뉴질랜드 머드토피아 페스티벌에 함께하며 양국과 도시의 우호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일 시장과 재단 관계자, 공연팀 등 모두 16명이 참가한 이번 방문단은 1일부터 3일까지 로토루아의 아라와파크에서 열린 머드토피아 개막식과 개막 축하 국악공연, 보령 존 등을 운영하고, 기타 공식일정에도 참여했다.

이번 머드토피아 축제에서는 머드 아레나와 게임, 머드 런과 같은 액티비티한 프로그램과 둘째날에는 머드 댄스장에서 춤을 추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함께한 공연으로 펼쳐지는 등 뉴질랜드 자국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교포들의 많은 참여로 이어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뉴질랜드 머드토피아는 2009년 중국 대련, 2015~2016년 스페인 라토마리나에 이은 세계에서 3번째로 열린 머드축제이지만, 기존에는 단순히 쇼케이스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축제 노하우 전수와 양도 시간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150년 동안 머드를 테라피와 트리트먼트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 온 로토루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머드를 전 세계로의 화상품 수출과 세계 4대 축제로 발전시킨 보령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플라보레이션 한 것으로, 당초에는 축제에 사용될 머드 파우더의 경우 연간 계약을 통해 보령시에서 수출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8월 뉴질랜드 로토루아 현지에서 시의회, 시민단체와 지역 여론의 반발로 수입 계약을 변경, 머드파우더 수출은 하지 않

기로 했으나, 축제의 노하우와 교류관계는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개막식에서 스티브 채드워 로토루아 시장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보령머드축제에서 영감을 받고, 지난 7월에는 직접 머드축제 장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머드로 지속될 양도시가 신뢰관계 속에서 상생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대한민국 보령과 뉴질랜드 로토루아는 위치와 기후가 정반대이지만, 지난해부터 머드축제를 통한 역사적인 만남으로 양국, 양도시간의 각별한 우정을 쌓으며 벽간 감동의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며, "세계 3번째이자, 남반구 최초 머드축제인 '머드토피아'를 중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두 도시의 상생번영과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describes the houses as a blend of modern and traditional styles, suitable for various needs.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bottom.

오늘의 하이라이트

꽃피어라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핵심 조직원 스무 명을 제외하고 간접사건으로...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30분)

두 집 살림을 하는 성필 때문에 두 명의 시어머니...

케이블 명화

토르:천둥의 신 (OCN 오후 4시20분)

천사같던 그녀의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거짓보다...

이후 후유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위경...

지선은 뒤늦게 경찰과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만...

결국 홀로 한때의 흔적을 추적하던 지선은 집...



그녀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이름, 나이, 출신 등 모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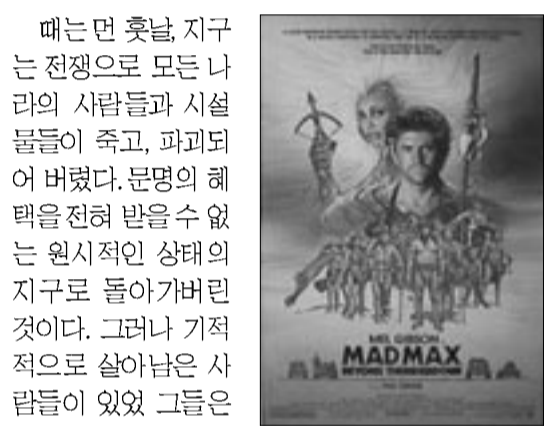
둘째 아내인 혜정이 가계가 바뀐다는 이유로...

전생에 원수들 (MBC 오후 7시15분)



재정말 우리집까지 온거야? 지석(구원)은 나라(최수린)의 퇴원을 돕고...

매드맥스 3 (채널CGV 오후 8시30분)



때는 먼 훗날 지구는 전쟁으로 모든 나라의...

그러던 어느날 맥스는 전편에서 만났던 헬기 조...

바타 타운(Batter Town)이라 불리는 이 도시에...

케이블 & 위성 방송

케이블 & 위성 방송 프로그램 목록 (OCN, 채널 CGV, Mnet, SBS 스포츠, YTN, MBC 뮤직, 애니맥스, JET,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 등)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표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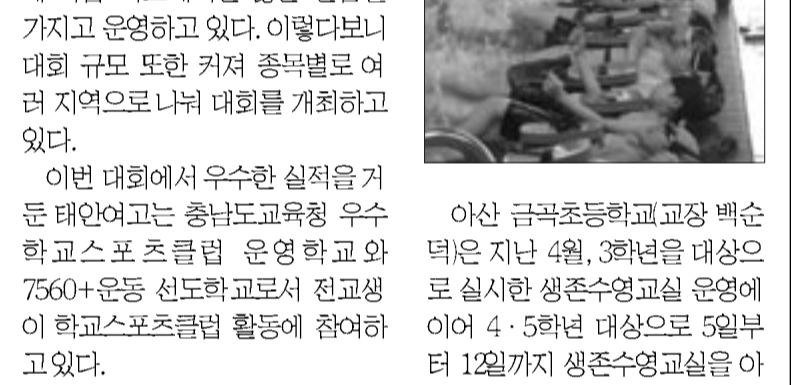
태안여고, 2017 전국학교 배드민턴대회 우승 차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권위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태안여고교장 전만복(가) 지난 2일~3일 이틀간 경상남도 밀양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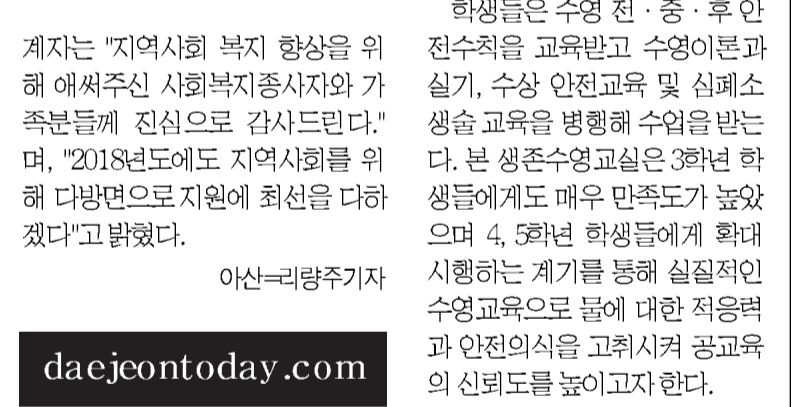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는 지난 1일, 아산시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제5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300여명의 지역사회 복지종사자·가족 초청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는 지난 1일, 아산시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제5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충남남부평생학습관, 일반직 공무원 15명 대상 운영



충남남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장은 지난 4일 남부지역 일반직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daejeontoday.com



**한국중부발전 'KOMPO' 동반성장페스티벌 개최** 한국중부발전(사장 직무대행 장성익)은 5일 서울 회현동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을 비롯하여 7개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중소기업 대표 약 150여명, 지난 10월에 시행된 청년창업 콘테스트 최종 선정자와 함께 '2017 행북동행365 동반성장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온양4동, 아산시설관리공단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추진** '아산시 온양4동 행복마을추진단(단장 박길남)이 4일 복지하브화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아산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 실시했다.



**우성정보대학 '2017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우성정보대학(총장 정상익)은 12월 4일 서캠퍼스 우송도서관에서 '일취월장 Job이라 명장 특특! 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주대, 2017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모국어해(겨울) 입학식** 5일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컨벤션홀에서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박승철 부장, 공주대학교 김희수 총장 직무대리, 관계자 및 전세계 16개국 65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17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모국어해(겨울)학기' 입학식을 가졌다.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 금연성공을 축하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대전충남지부(본부장 배기웅, 이하 건협)는 지난 1일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공군제20전투비행단 금연성공인원들을 대상으로 금연축하성공파티를 개최했다.



**청양읍버섯개살기협의회, 쌀 기탁** 버섯개살기운동 청양읍협의회(회장 박희준)는 지난 4일 청양읍사무소를 방문, 국유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은 쌀 50포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해 달라며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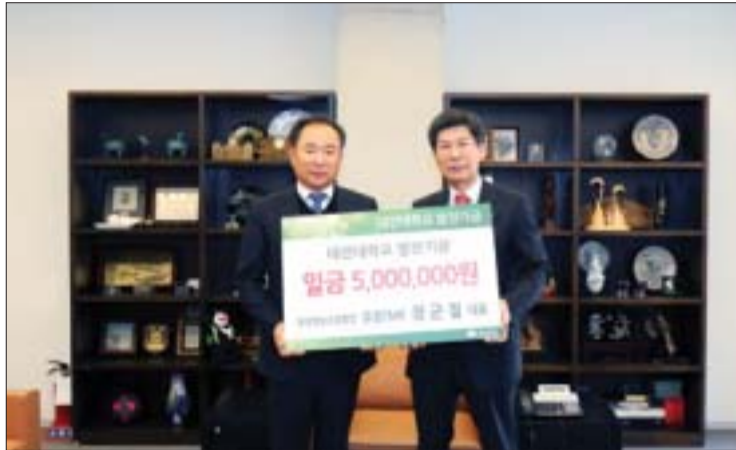
**유정 TMR(혼합사료)의 정균철 대표**

**대전대에 발전기금 5백만원 전달**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발전협력사무국에서는 5일 대학 30주년 기념관 9층 접견실에서 유정 TMR(혼합사료)의 정균철 대표로부터 5백만 원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종서 총장을 비롯해 강석만 발전협력 사무국장장과 정균철 대표 등 10여 명의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평소 대학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던 정 대표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진행됐다.

지난 2013년 대전대학교로부터 '명예이학박사'를 수여 받은 바 있는 정 대표는 그동안 산학협



력단과의 꾸준한 업무교류를 바탕으로 졸업생들을 적극 채용하기도 하는 등 대학이 명문사학으

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큰 일조를 해왔다. 특히 2012년에는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바 있기도 하다. 정균철 대표는 "대전대학교와는 정말 오랜 인연을 맺어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발전기금과 더불어 재학생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서 총장은 "이번 발전기금은 정 대표님의 대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대전대학교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충남서부보훈지청, "따뜻한보훈" 실현 위해**

**'LOVE 人 보훈가족 섬기기' 실시**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안기선)은 국가보훈처 정책 브랜드인 "따뜻한보훈" 실현을 위한 동질기계가 "LOVE 人 보훈가족 섬기기" 사업을 실시했다. 보병, 홍성에 거주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댁에 방문하여 김장김치, 극세사 이불 등 위문품을 전달

하고 위로·격려했다. 보령시 청소면에 거주하는 이\*\*(62.25점전.90세) 어르신은 고령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홍성=김정환기자

**대전교육청, 크리스마스 쉼 모금 운동 동참**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5일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남상현 부회장)로부터 크리스마스 쉼(100시트)을 증정받고,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 쉼 모금 운동은 대한결핵협회가 1953년 창립되면서부터 결핵퇴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법국민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결핵 예방·관리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모금액은 학생 결핵환자에게 결핵완치 독려금 및 영양식 섭취비를 지원하는 학생 행복나눔 사업, 노숙인 결핵환자 치료·자활, 결핵환자 수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결핵환자 및 결핵 후유증 환자 보호시설 지원사업, 학생·취약계층·군인 등을 대상으로 연간 200만 원 규모로 이뤄지는 흉부 X-선 결핵검진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김정환기자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 간담회 및 안전교육 실시**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관장 권광선)은 5일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간담회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꿈나무장학회원, 유성구 봉사상 수상**

장은의 감사·박정숙 부회장

유성구청에서 5일 봉사상을 꿈나무장학회(회장 유미자)회원 이수상했다. 장은의 감사와 박정숙 부회장은 허태정유성구청장의 격려와 표창을 받았으며 각 분야별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허태정구청장은 "유성의 발전이 오늘수상하신 여러분들의 노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꿈나무장학 회원들의 축하 속에 더 큰 봉사를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김태선기자



**선문대,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수상**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 학생들의 발명품이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 발명가에게 이 대회는 세계 각국 발명가에게 상품홍보, 기술이전, 사업화 기회 제공을 주기 위해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진행됐다.

선문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3D창의융합, 스마트자동차공학, 치위생 총 3개 학과가 참가했다. 학생들은 3D프린팅, IoT, 디지털 치위생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특히 출원 후 대회에 출품했다. 3D창의융합학과는 '임팩트 서클'을 이용한 전기 자전거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특별상과 은상을 받았다. 홍학표(3)의 3명이 팀을 이뤘다. 스마트자동차공학부와 치위생학과는 각각 동상을 차지했다. 스마트자동차공학부는 홍주원(1)의 6명이 참가했으며 '자동차의 문턱을 방지하는 파손 방지장치'를 만들었다. 치위생학과는 황보주영(2)의 1명과 스마트자동차공학부가 연합해 '세균 감지 칫솔'을 선보였다.

이산=리랑주기자

**안희정 도지사, 적십자**

**특별회비 5백만 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4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적십자 특별회비 5백만 원을 전달 받았다.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 회장, 광복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충남 지역 4대 취약계층이동청소년, 노인, 이주민가정, 기타취약계층 지원 활동 및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201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은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집중 모금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독고**

**노인 "가전제품 수리봉사"**



삼성전자서비스센터(천안) 봉사팀에서는 매년 독고노인을 위한 "가전제품 수리봉사" 및 천안시 흥타령축제 행사에 '봉사도유미'로 활동하며 지역의 젊은 직장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에 실시한 독고노인을 위한 가전제품 수리봉사에서는 천안 지역에 가정 환경이 어렵고 의지할 곳 없으신 노인들을 위해 TV, 냉장고, 전자렌지에어컨 등 평소 고장이 나면 생활에 직접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가전제품을 정성스럽게 수리해 주며 훈훈한 인정을 나누었다.

천안=이종호기자

**충남대 문희철 교수**

**근정포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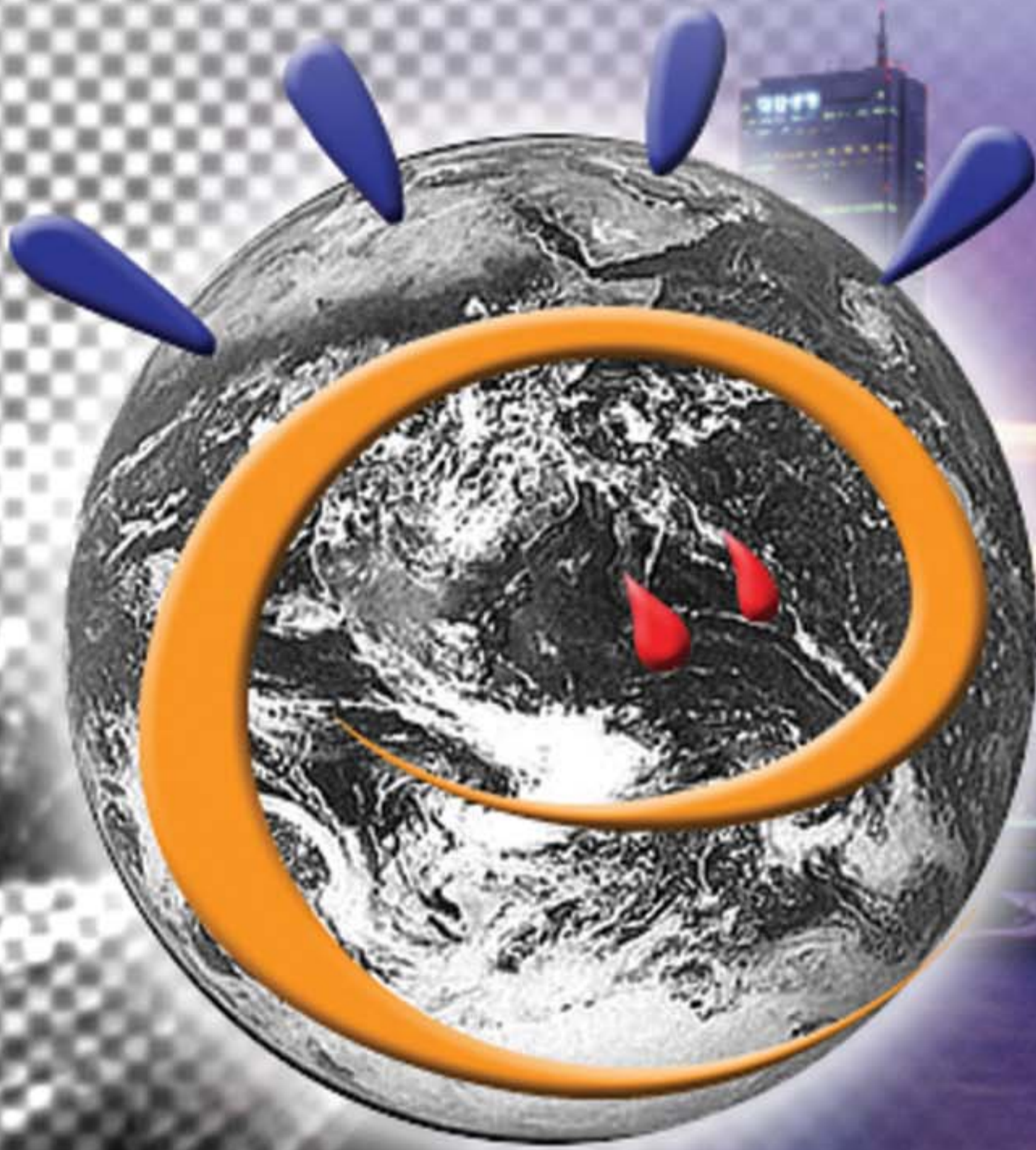


충남대 무역학과 문희철<사진>수가 무역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12월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충남대 문희철 교수가 근정포장을 받았다. 문희철 교수는 지난 1월부터 국내 무역분야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무역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산·학·관 협력을 통한 무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복기자



**한빛새마을금고, 서구청에 1천만원 성금 기탁** 한빛새마을금고는 일서구청다목적실에서 관내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실천과 사회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기탁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경제인고용촉진공단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력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주식회사 대생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순용


 KRRI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KRRI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esan Forestry Cooperative

 대한민국에너지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금산공판장G마트